《문자제국 쇠망약사》
이남호 지음 | 생각의나무 | 194쪽 | 값 11,000원

문자제국 쇠망약사

전문가 서평 글 | 이재룡

섬세한 분석, 단호한 태도로 밝히는 전자문화 세태

전자기술, 사유·기억·판단 등 인간 정체성 영역 침투

인쇄술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사진술이 추상화를 낳게 했다. 저마다 성경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근대적 인간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면, 자연의 모방에 있어서 인간의 손재주를 능가하는 기술의 발명은 예술의 정의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사진 덕분에 추억의 사유화가 가능해지자 장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근대적 의미의 관광사업이 생겼는가 하면 손으로 베끼기 어려운 상형문자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연구한 덕분에 고고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듯 인쇄기술이 인간과 신에 대한 관계를 바꿀 만큼 결정적이었고, 사진은 미술, 고고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켰다. 상세한 고증과 더불어 다소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적어도 기술이 얼마만큼 문화와 예술, 심지어 관광과 같은 일상의 취미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그런데 근래 전자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앞서 든 예보다 훨씬 깊고, 넓고, 빠르다. 더구나 과거의 기술문명이 인간의 육체적 노역을 덜어준 도구적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컴퓨터로 대표되는 전자기술은 기억, 사유, 판단과 같은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

국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 이남호가 정통 인문학 영역의 밖에 있던 TV, 영화, 월드컵,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자기술의 영향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문학이 그 생명과 존엄을 위협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진단 역시 종합적, 포괄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문자제국 쇠망약사》라는 제목이 뜻하듯 이 책은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금이 간 문자세계를 탐사하고 진단하는 글이다.

전자문명의 어두운 측면의 포괄적 주제, 200쪽 미만에 담아

머리말을 빼면 여섯 부분으로 이뤄진 《문자제국 쇠망약사》에서 저자는 마셜 맥루한의 대담 내용을 꼼꼼히 짚어보는 것으로 말문을 연다. 대담의 한 단락을 발췌 인용하고 저자가 해석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한 이 부분은 책의 전체 방향을 예감하게 한다. 짧지 않은 이 책에서 저자가 줄곧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자와 영상, 아날로그와 디지털 등 우리 문화를 설명하는 두 항목의 관계가 상보적인지, 배타적인지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전자 사막에서 살아남기'와 '월드컵과 마르코니 성운'이란 소제목을 단 글이 전자기술의 영향으로 달라진 우리 시대의 풍경을 분석한 것이라면 그 뒤를 잇는 '내면성의 빈곤'과 '문학의 내파'에서 저자는 문학에 드리워진 전자문명의 어두운 측면을 구체적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소외의 독서와 독서의 소외'에서는 문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쓰기와 읽기 중에서 독서의 의미를 주로 버커츠의 의견을 빌어 꼼꼼히 따지고 마지막 부분인 '문자제국 쇠망약사'에서는 쓰기와 읽기의 물적 토대이자 인쇄문화의 결정체, 종이와 활자를 편집, 디자인을 통해 생산된 책의 물질적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문자문화가 처한 환경, 그 문화의 핵심인 문학과 독서

행위, 그리고 글을 담는 물질로서의 책을 검토하는 수순은 매우 논리적이다. 200쪽에 못 미치는 분량의 그릇에 포괄적 주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담겠다는 저자의 당찬 의도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전자문화에 타살당한 문자문화', 진지한 탐구

인문학의 위기, 혹은 문학의 쇠퇴와 저자의 죽음을 운위하는 글은 지금까지 적지 않았고 어쩌면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 쑥스러울 정도이다. 문학을 외면하는 독자를 꾸짖고 문학 강의실을 떠나는 학생에게 호통치고 그런 사태의 주범으로 전자문화의 범람을 손가락질하며 문학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은 많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학의 쇠퇴는 예언이나 경고가 아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독자와 학생에게 아무런 공감도 얻지 못하고 예전에 누렸던 후광에 대한 향수, 시대로부터 소외당했다는 소설가, 평론가, 문학교수의 넋두리로 들리기 십상이다. 독서를 권장하면서도 독서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인간에게 그토록 절실한 것인지 설득하는 이론적 글은 드물었다. 또한 문학을 포함한 인쇄문화가 전자문화에게 타살되었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그 범인에 대한 진지한 탐구 자체는 문학비평의 바깥 영역인 양 외면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실 인간과 문화, 예술과 기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이런 광범위한 문제는 학문의 한 영역, 특정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다. 예컨대 《문자제국 쇠망약사》 중에서 전자문화를 다룬 앞의 두 부분과 출판의 역사와 편집디자인을 다룬 마지막 부분은 문학교수이자 평론가인 저자가 평소 논구하는 분야를 벗어난 것이리라. 그래서 그가 원용한 외국학자는 주로 전자매체와 그 관련분야에 대한 학자이며 당연히 외국현실을 분석한 글에 기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예컨대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섰고 전자문화의 영향력과 변화속도가 크고 빠른 탓에 그들의 예언이 현실화된 사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인쇄·전자문화 이항대립 제시… 양쪽 아우르는 모호함 거부

저자는 시종일관 디지털과 아날로그, 인쇄문화와 전자문화의 이항대립을 해석의 틀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애당초 불가능한 객관성을 표방하거나 어설픈 절충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도한 흐름으로 밀려오는 전자문화의 특징을 기술, 분석하는 대목에는 새로움에 대한 들뜬 기대가 없고, 문학의 위엄과 글의 영향력이 쇠락하는 것을 바라보는 대목에 이르면 안타까움과 향수를 애써 감추지 않는다. 그는 문학에 대한 편애를 드러내는 쪽을 택함으로써 굳이 양쪽을 모두 아우르려는 모호한 타협을 꾀하지 않았다.

저자는 자신이 문자세대에 속하며 그 세대가 참되다고 믿었던 가치관을 결코 바꿀 수 없음을 책머리에서 고백하고 있다. 분석은 섬세하지만 태도는 단호하다. 어차피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극장도 가고, 축구도 즐기고, 싸구려 책도 읽으면서 진지한 독서까지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자문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하고 적응해야 할 대세임을 저자도 인정한다. 우리 문화의 천박함과 지성의 조잡함을 논하는 그의 어투는 담담하고, 책을 관통하는 전반적 정조는 쓸쓸함과 외로움이다. 쇠망한 제국의 시민들은 모두 공감할 책이다. ■

종합/해설
ETNEWS 전자신문
www.etnews.co.kr
'수능 D-15' 바빠진 온라인 교육업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닥치면서 온라인 교육업체들도 수험생 못지 않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학원 밀집지역인 노량진 소재 코리아에듀 직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실제 강의를 녹화하며 화면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

이 글을 쓴 이재룡은
성균관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브장송 대학 불문학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숭실대 불문과 교수로 있다.
역서로 《외로운 남자》 《욕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별 연습》
등이 있다.